

체류시간 늘리는 명소 꿈꾼다

관광객 1천만시대를 활짝 열어
젖힌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이
이번에는 최고의 산책코스를 만
들고 있다.

지역의 랜드마크인 고창읍성과
자연마당, 노동자수지와 연결돼
지역주민들의 데이트 코스로 사
랑받고, 관광객들의 체류시간을
늘리는 명소를 꿈꾼다. 2024년
봄, 고창군 꽃정원 단지 추진전
략을 살펴봤다. /편집자 주



▲ "고창읍 관광 체류시간을 늘려라" ... 24~26일 치유문화축제 꽃정원단지와 고창읍 성 잔디광장서 예정

고창읍 노동리, 고창군민들이 집 앞에서 가볍
게 산책하고, 관광객들이 사진 찍고 돛자리 펴
고 피크닉을 즐길 수 있는 꽃정원이 만들어지
고 있다. 사계절 자연스러운 '개화 릴레이'가
이어지도록 각 수종의 개화 시점과 기간, 순서
등을 고려한 식재를 진행한다.

올봄 첫선을 보인 꽃정원은 크게 테마별 정
원(상징정원, 힐링정원)과 치유타밭으로 만들
어졌다. 상징정원은 고인돌과 고창읍성 담성돌
이 등의 상징적인 의미가 포함된 대형 조형물
과 토퍼어리가 관람객들을 맞는다.

힐링정원은 힐링과 휴식을 위한 공간으로 소
통 습터의 장소로 동양적인 느낌과 목재 재질,
전통창호, 킷바투 습터 조성으로 구성해 꽃을
바라보며 꽃멍을 할 수 있고, 관광객들이 포토
존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꾸며가고 있으며 지
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. 치유타밭은 치유농
업을 하는 농업인과 지역 주민이 함께 참여하
는 텃밭으로, 관내 노인, 장애인, 치매 환자와
함께 힐링·교육 공간으로 만들어갈 예정이다.

특히 코스모스가 만발하는 가을에는 더 멋진
꽃밭이 기대되고 있다. 단지내 다랭이 경관을
활용해 정미정원이 만들어지고 있다.

특히 고창군과 고창문화도시센터가 오는
24~26일 고창읍성과 꽃정원단지 일원에서

2024 고창 꽃정원 치유문화축제'를 연다. '꽃
정원에서 즐기는 힐링피크닉'을 주제로 꽃밭
산책길, 꽃밭 속 피크닉존, 마음에 꽃을 가득
피우는 마음정원 프로그램 등 꽃을 소재로 한
다양한 체험프로그램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.

▲ 2년간 이어질 꽃정원단지 프로젝트 기대감 UP

꽃정원 단지는 고창읍을 중심으로 한 체류형
관광 활성화의 하나로 기획됐다. 그간 고창읍
찾은 수많은 관광객들이 30분가량 성곽을 도는
것 외에는 별다른 볼거리, 체험거리가 없다는
지적이 제기돼 왔다. 이에 심덕섭 고창군수는
취임직후 사계절 꽃피는 고창을 목표로 '꽃정
원 단지 프로젝트'를 구상했다. 특히 지난해
세계유산도시 고창방문의해를 맞아 시범 조성
한 꽃정원 단지가 큰 인기를 끌었고, 모양성제
때에도 야간 경관조명으로 꽃정원 발길이 이



고창읍 노동리 일원서 꽃정원 첫 선... 치유타밭 등으로 조성 2년간 진행 꽃정원 단지 프로젝트, 교육·주민참여 등으로 활용



어지면서 향후 꽃정원 본 프로젝트의 기대감
을 키우고 있다.

특색있는 꽃정원 조성을 위해선 관광객 체류
형 관광 인프라 구축 등 2년의 장시간 많은 예
산에 투입된다. 올 1월부터 기본계획을 수립하
고 1단계 사업으로 단지내 토양 배수불량 해결
기본·실시설계와 현장측량을 통해 대대적인
배수로 정비공사가 진행됐다.

또한 수년간 방치되었던 매화공원의 농자재
폐기물 등을 주변 환경정비 용역으로 새롭게
단장해 군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었
다.

이외에도 꽃정원을 찾는 관광객의 편의시설
인 주차장을 90면을 확보했고, 꽃정원 진입로
동선에 보행매트를 깔아 누구나 손쉽게 꽃밭
을 둘러볼 수 있도록 했다. 꽃정원 단지 8만㎡
부지에 대한 본격적인 기반공사를 진행해 주
변 법면 정비와 행정적인 인허가 절차를 통한
단지조성의 문제점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
하여 해결책을 만들어 가고 있다.

▲ "지금 우리에게 정원이 필요하다" ... 도 시에 활력을 더하고 힐링하는 정원 단순하고 지루한 녹색이 아닌 변화와 다채로



움으로 일상에서 매일 설렘을 느낄 수 있는 정
원으로 채워진 도시가 있다면 어떨까. 비용 없
이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도시가 주민에게
선사할 수 있는 위안과 치유, 그것이 바로 꽃
과 나무가 있는 정원이다.

고창군은 꽃정원단지 프로젝트를 단순히 보
고 즐기는 차원을 넘어 교육과 주민참여 등으
로 다양하게 활용해 나갈 방침이다. 은퇴 후
적절한 일상에서 집 앞의 꽃과 텃밭을 가꿀 수
있다면 우리의 생애가 좀더 행복으로 채워지
지 않을까를 고민했고, 청년 창업 아이템을 구
상했다.

고창군은 청년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할 수
있도록 청년 창업농과 꽃정원이 연계한 6차 산
업의 체험카페, 치유프로그램, 농특산물 판매
등의 사업을 기획하고 있다. 또한 식재된 식물
을 활용해 놀이감 만들기, 정원 관련 그림책
읽고 식물 탐색하기 등 다양한 유아숲체험 프
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자연학습 프로그램과
연계할 계획이다.

심덕섭 고창군수는 "도시의 품격과 삶의 질,
미래경쟁력을 단번에 보여주는 바로미터(지
표)가 바로 도시 속 녹지공간, 정원이다"며
"한 그루의 나무가, 한 뼘 더 늘어난 공원과
꽃밭으로 군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관광객
을 불러들여 도시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"고
밝혔다. /고창=김영식 기자



전북의 미래 대한민국의 새만금